

올해 40개교에 예술놀이터 조성

전북자치도교육청, 2026년까지 도내 초·중·고 200개교에 조성키로... 오늘 학교 담당자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40개교에 예술놀이터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200개교에 예술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시, 공연, 예술체험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술놀이공간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일 예술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운영학교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예술놀이터 공간조성 사업 및 활용 방안, 예술놀이터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전주사대부고 예술놀이터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학생 미술작품 전시, 학생예술동아리 활동, 다양한 예술



전주사대부고 예술놀이터에서 진행된 예술동아리 공연.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공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제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맞춤형 현장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 40개교, 2023년 40개교 등 지난해까지 80개교에 예술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다.

이서기 문예재단과장은 "예술놀이터는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대동제 기간인 지난 8~9일 양일 간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안전, 절대 지켜!'... 전북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등과 협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대동제 기간인 지난 8~9일 양일 간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과 함께 '안전, 절대 지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취업 시 안전한 일터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안전 메시지가 포함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안전 의식을 일깨웠다.

또한 안전·보건 체험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안전 물뿔 돌리기 △안전 포스터 설명 △보호구 착용 교육 등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안전 의식을 제고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해 준 대학 구성원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대 학생들은 미래의 근로자로서 안전의 일상화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2024년부터 안전 문화 확산을 실현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가입해 우리 지역의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JOB DAY

취업박람회 '성황'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일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JOB DAY 취업박람회가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진알미음, 대림씨앤씨, 이피팩, 글로벌 인사담당자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청년이음 전주, 전주시마음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특히 청년들의 흥미제고를 위해 퍼스널컬러, 풍선아트, 핸드폰케이스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스탬프, 베스트인, 휴먼제이앤시 등과 협업을 채용 설명회도 가졌다.

조덕현 센터장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9일 청렴마인드 화분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교직원 1인 1청렴 화분 가꾸며 청렴 다짐'

전북교육연수원, 청렴마인드 화분 가꾸기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9일 청렴마인드 화분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1인 1청렴 화분 가꾸기 행사를 통해 자발적인 청렴 실천 다짐과 일상적인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화분에 자신의 청렴 다짐을 적어 함께 키우면서, 서로의 다짐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렴가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했다. 이 행사를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한 가치관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문병기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교직원들이 청렴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 취업박람회 현장. (사진=전주기전대학 제공)

'성공적인 관계 관리'

전북대, 배우 정준호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9일 진수당 바로오후에서 영화배우인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성공적인 관계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한 정 위원장이 자신의 인맥관리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며 우리네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임을 강조해 온 정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도 성공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인간관계는 잔고액이 많은 통장이 돼야 한다. 힘들 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역사를 만든다"며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물이 돼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강에 초청해 준 양오봉 총장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전북대가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북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배우 정준호의 특강 모습.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총 683명... 합격률 7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누리집을 통해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초졸 47명·중졸 137명·고졸 499명 등 총 683명이다. 합격률은 78%로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보다 1.29% 상승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험장을 6개 권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으로 확대하면서 응시율도 최근 3개년 평균 응시율보다 5.46% 높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2세·중졸 78세·고졸 80세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중졸 13세·고졸 13세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는 9일 오후 1시부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응시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성적조회는 오는 28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개인별공개시스템]에서 본인에 한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고개지원실, 각급 학교 행정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전주대학교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단이 지난 8일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 산학협력 세미나를 연 가운데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이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주대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 세미나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지난 8일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 산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 사업단 참여교수와 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발전기금(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전달식에 이어 광주지방국세청 양동구 청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대표 김혜영)은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단에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혜영 대표는 "사업단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믿고 신청에 신뢰를 갖게 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며 "두 기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속을 위

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는 공모전 및 지역기반 ICT경영커플링사업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김효진 단장은 "개교 60주년 기념 발전기금을 통해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의 양동구 청장이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주제로 국세청의 역할 및 대학생이 알아야 할 세금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해 직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IB 연구 실천력 확대 중점

전북자치도교육청, IB 연구회 합동 컨설팅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IB 연구회 합동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컨설팅에는 연구회 대표 및 총무 등 90여 명이 참여해 연구회 운영 계획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실천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더블-업 연구회는 'IB DP를 활용한 공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구슬쟁가, 서논술형 평가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DP(고등학교)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성취기준에 기반한 채점기준을 작성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맞아 전 세계적인 IB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및 지향점을 분석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를 안내했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을 제고해 학교 현장에서 IB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 연구회에는 40팀 초·중·고 교 교원 493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악용한 교육 흔들기 우려'

전북교총 "교육 당국이 행정으로 막아야"

"교육당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묻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교육 흔들기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을 개별 학교의 담당자가 A씨의 개인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차'를 업무로 하는 교사라는

것. 더군다나 공공기관 교사는 최대 5년 내외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업무는 보통 1년 주기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담당 교사가 최근 4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개인(혹은 개인을 위시한 불분명한 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돼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고, 이번 청구뿐 아니라 추후 정보공개 청구제도 악용으로 대한

민국 교육을 흔들지 않도록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